별첨 **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**

【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분석 】

▪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, 1인당 월평균, 참여율 증가세 현격히 둔화
- [사교육비 총액 전년 대비 증가율] ('22) 10.8% → ('23) 4.5%
- [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 대비 증가율] ('22) 11.8% → ('23) 5.8%
- [참여율 전년 대비 증가폭] ('22) 2.8%p → ('23) 0.2%p

▪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0.8%p 하락 : ('22) 76.2%→ ('23) 75.4%

▪ 방과후학교 참여율 4.8%p 증가 : ('22) 36.2% → ('23) 41.0%

※ 이하의 학교급별/교과별 분석은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기준임

【 초중고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('19-'23) 】

□ (**총액**) '23년 **사교육비 총액**은 **27.1조 원**으로 전년 대비 **4.5% 증가하였으며** '21년 23.4조 원(21.0%↑), '22년 26.0조 원(10.8%↑)과 비교하여 증가세가 현격히 **둔화**

- (**학교급별**) 초 12.4조(4.3%↑), 중 7.2조(1.0%↑), 고 7.5조(8.2%↑)

□ (**참여율**) '23년 사교육 **참여율**은 **78.5%**로 전년 대비 **0.2%p** 증가하여 '21년 75.5%(전년대비 8.4%p↑), '22년 78.3%(2.8%p↑)과 비교 시 증가세 현격히 **둔화**

- (**학교급별**) 초 86.0%(0.8%p↑), 중 75.4%(0.8%p↓), 고 66.4%(0.5%p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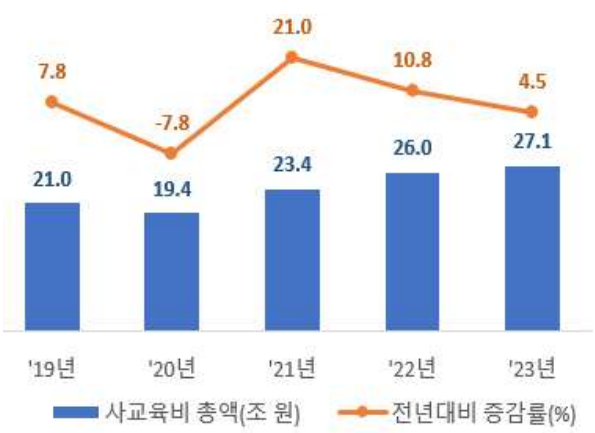
□ (**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**) '23년 **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**는 **43.4만원**으로 전년대비 **5.8%** 증가하여 '21년 36.7만원(21.5%↑), '22년 41.0만원(11.8%↑)과 비교 시 증가세 현격히 **둔화**

- (**학교급별**) 초 39.8만 원(6.8%↑), 중 44.9만 원(2.6%↑), 고 49.1만 원(6.9%↑)

□ (**방과후학교 참여율**)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'21년 28.9%, '22년 36.2%에 이어 '23년 41.0%로 **지속적인 회복세**를 보임

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세 현격히 둔화

【 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'19-'23) 】



□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.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.5% 증가하여 2021년(21.0%↑) 및 2022년(10.8%↑)과 비교하여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학교급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.4조 원, 중학교가 7.2조 원, 고등학교가 7.5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.3%, 1.0%, 8.2% 상승하였다.

【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('19-'23) 】

구분	사교육비 총액 (조 원)					전년대비 증감률 (%)				
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전체	21.0	19.4	23.4	26.0	**27.1**	7.8	-7.8	21.0	10.8	**4.5**
초등학교	9.6	7.6	10.5	11.9	**12.4**	11.8	-20.4	38.3	13.1	**4.3**
중학교	5.3	5.4	6.3	7.1	**7.2**	5.2	2.6	17.7	11.6	**1.0**
고등학교	6.2	6.3	6.5	7.0	**7.5**	4.2	2.7	3.0	6.5	**8.2**

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.4만원으로 전년대비 5.8% 증가하였으며, 202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증가세는 둔화되었다.

○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가 39.8만 원(6.8%↑), 중학교 44.9만 원(2.6%↑), 고등학교 49.1만 원(6.9%↑)으로 전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.

【 학교급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'19-'23) 】

구분	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(만 원)					전년대비 증감률 (%)				
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전체	32.1	30.2	36.7	41.0	**43.4**	10.4	-6.0	21.5	11.8	**5.8**
초등학교	29.0	23.5	32.8	37.2	**39.8**	10.3	-18.8	39.4	13.4	**6.8**
중학교	33.8	34.2	39.2	43.8	**44.9**	8.4	1.0	14.6	11.8	**2.6**
고등학교	36.5	39.6	41.9	46.0	**49.1**	13.6	8.4	6.0	9.7	**6.9**

□ 교과별로는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.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.3% 증가하였으며, 예체능은 10.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.1% 증가하였다.

○ 특히 일반교과 중에서는 국어 3.8만 원(11.1%↑) > 사회·과학 1.9만 원(8.2%↑) > 수학 12.2만 원(5.6%↑) > 영어 12.8만 원(3.8%↑) 순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.

○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국어(13.9%↑), 예체능/취미교양(9.1%↑)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으며, 중학교는 국어(7.3%↑), 수학(3.4%↑), 고등학교는 국어(9.2%↑), 사회/과학(13.8%↑)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.

【 교과별 ·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(만 원) 】

구 분	2022년				2023년				전년 대비 증감률 (%)			
	전체	초	중	고	전체	초	중	고	전체	초	중	고
전체	41.0	37.2	43.8	46.0	43.4	39.8	44.9	49.1	5.8	6.8	2.6	6.9
일반교과 및 논술	31.0	23.4	38.3	39.0	32.6	24.7	39.3	41.8	5.3	5.4	2.6	7.2
국어	3.4	2.2	2.9	6.5	3.8	2.5	3.1	7.1	11.1	13.9	7.3	9.2
영어	12.3	10.8	15.3	12.4	12.8	11.2	15.5	13.1	3.8	3.9	1.7	6.0
수학	11.6	7.1	16.3	16.0	12.2	7.5	16.8	17.1	5.6	5.7	3.4	6.4
사회/과학	1.8	0.9	2.2	3.2	1.9	1.0	2.2	3.7	8.2	2.2	2.9	13.8
예체능 · 취미교양	9.8	13.8	5.4	6.1	10.5	15.0	5.5	6.4	7.1	9.1	3.0	4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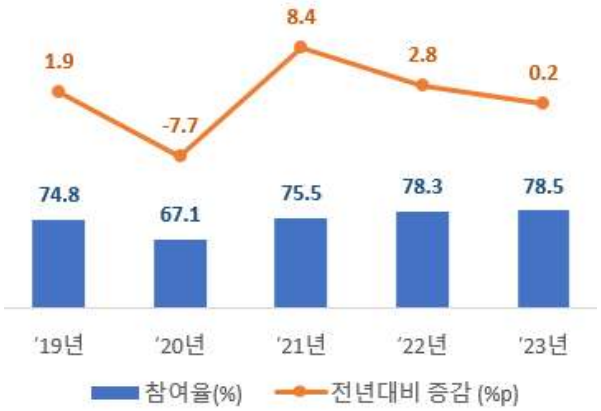
참여율 증가세 둔화,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하락

□ ’23년 사교육 참여율은 78.5%로 전년대비 0.2%p 증가하였으며, ’21년 사교육 참여율 75.5%(8.4%p↑), ’23년 78.3%(2.8%p↑)와 비교하여 증가세는 현격히 둔화되었다.

□ 조사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86.0%(전년 대비 0.8%p↑), 고등학교가 66.4%(전년 대비 0.5%p↑),로 증가하였으나, 중학교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75.4%로 전년 대비 0.8%p 감소하였다.

○ 특히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76.9%(전년 대비 0.7%p↓), 2학년이 76.2%(전년 대비 0.04%p↓), 3학년이 73.0%(전년 대비 1.7%p↓)로 중학교 3학년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.

【 사교육 참여율 (’19-’23) 】



【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(’19-’23) 】

구분	사교육 참여율(%)					전년대비 증감 (%p)				
	’19년	’20년	’21년	’22년	’23년	’19년	’20년	’21년	’22년	’23년
참여율(%)	74.8	67.1	75.5	78.3	**78.5**	1.9	-7.7	8.4	2.8	**0.2**
초등학교	83.5	69.7	82.0	85.2	**86.0**	0.9	-13.7	12.3	3.2	**0.8**
중학교	71.4	67.3	73.1	76.2	**75.4**	1.7	-4.1	5.9	3.0	**-0.8**
고등학교	61.0	61.6	64.6	66.0	**66.4**	2.4	0.6	3.0	1.4	**0.5**

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전년 대비 유사

□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,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으며,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대비 300만 원 미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약 3.7배로 나타났다.

※ (2022) (800만 원 이상 약 64.8만 원) / (300만 원 미만 약 17.8만 원) = 약 3.7배
(2023) (800만 원 이상 약 67.1만 원) / (300만 원 미만 약 18.3만 원) = 약 3.7배

□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(서울 및 광역시) 지역과 대도시 외(중소도시 및 읍면지역)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.3배*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

* (2022) (대도시 47.5만 원) / (대도시 외 36.9만 원) = 약 1.3배
(2023) (대도시 50.6만 원) / (대도시 외 38.9만 원) = 약 1.3배

○ 광역시(7.9%↑)>중소도시(6.0%↑)>서울(5.3%↑)>읍면지역(2.2%↑) 순으로 전년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았으며,

- 특히 읍면지역은 코로나19 이후 2년간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.2%로 지역규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.

【 지역규모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('19-'23) 】

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(만 원)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대도시	36.7 (10.1%↑)	35.7 (2.7%↓)	42.6 (19.3%↑)	47.5 (11.5%↑)	50.6 (6.6%↑)
서울	45.1 (9.6%↑)	45.3 (0.6%↑)	52.9 (16.6%↑)	59.6 (12.8%↑)	62.8 (5.3%↑)
광역시	31.0 (10.7%↑)	29.3 (5.7%↓)	35.8 (22.4%↑)	39.5 (10.4%↑)	42.7 (7.9%↑)
대도시 外	29.1 (10.8%↑)	26.6 (8.6%↓)	32.9 (23.6%↑)	36.9 (12.3%↑)	38.9 (5.4%↑)
중소도시	32.1 (10.9%↑)	29.3 (8.8%↓)	35.9 (22.4%↑)	40.1 (11.7%↑)	42.5 (6.0%↑)
읍면지역	20.3 (11.8%↑)	19.2 (5.3%↓)	24.7 (28.4%↑)	28.2 (14.6%↑)	28.9 **(2.2 %↑)**

□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62.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7.9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,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광주가 11.4%로 가장 높고 울산이 0.3%로 가장 낮았다.

【 시도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('19-'23) 】

구 분		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(만 원)					전년 대비 증감률(%)				
		'19	'20	'21	'22	'23	'19	'20	'21	'22	'23
전국		32.1	30.2	36.7	41.0	43.4	10.4	-6.0	21.5	11.8	5.8
시	서울	45.1	45.3	52.9	59.6	62.8	9.6	0.6	16.6	12.8	5.3
	부산	31.6	28.3	36.9	39.5	43.4	14.3	-10.2	30.1	7.1	10.0
	대구	32.9	29.0	40.0	43.7	45.9	8.6	-11.8	37.9	9.4	5.0
	인천	31.3	30.1	34.4	38.6	42.4	13.0	-3.8	14.3	12.3	9.9
	광주	27.6	29.9	32.0	35.6	39.6	5.3	8.6	7.0	11.1	11.4
	대전	31.1	30.2	36.4	38.9	41.0	15.0	-2.9	20.6	6.8	5.5
	울산	27.4	25.4	30.0	36.7	36.8	3.6	-7.4	18.2	22.2	0.3
	세종	34.1	30.7	36.9	41.8	46.5	18.4	-10.1	20.5	13.1	11.2
도	경기	35.8	31.6	39.3	44.6	46.9	11.7	-11.8	24.2	13.6	5.1
	강원	22.0	22.6	26.6	29.6	32.4	7.1	2.9	17.9	11.1	9.7
	충북	24.3	22.5	28.4	31.8	32.1	-0.6	-7.3	26.3	11.8	1.2
	충남	23.7	19.5	26.0	29.2	30.8	26.9	-17.6	33.4	12.3	5.2
	전북	23.9	22.6	27.4	29.6	30.2	14.0	-5.5	21.3	8.1	2.2
	전남	18.1	19.1	23.3	26.1	27.9	-4.8	5.5	22.0	12.1	6.6
	경북	22.5	20.7	27.9	29.4	31.5	5.0	-7.7	34.5	5.6	7.1
	경남	24.8	24.1	27.6	31.1	32.4	9.9	-2.8	14.5	12.6	4.0
	제주	25.8	27.3	29.6	31.4	34.5	11.0	6.0	8.5	6.0	9.7

□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이 84.8%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7.3%로 가장 낮았으며, 전년 대비 증감폭은 세종이 3.4%p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-1.1%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

【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현황('19-'23) 】

구 분		사교육 참여율(%)					전년 대비 증감(%p)				
		'19	'20	'21	'22	'23	'19	'20	'21	'22	'23
전국		74.8	67.1	75.5	78.3	78.5	1.9	-7.7	8.4	2.8	0.2
시	서울	80.0	75.0	81.5	84.3	84.8	0.2	-5.1	6.6	2.8	0.4
	부산	75.9	67.1	77.4	78.7	80.1	5.6	-8.8	10.3	1.3	1.4
	대구	75.5	65.9	79.1	79.9	80.2	1.7	-9.6	13.2	0.8	0.3
	인천	75.1	66.6	73.9	77.9	77.3	2.5	-8.5	7.3	4.1	-0.6
	광주	73.7	67.1	73.6	74.9	76.3	4.3	-6.7	6.5	1.3	1.4
	대전	74.5	68.2	75.6	77.7	77.9	0.7	-6.3	7.5	2.1	0.2
	울산	73.0	65.2	73.7	78.4	78.2	-0.4	-7.8	8.5	4.7	-0.2
	세종	81.3	73.0	81.1	80.5	83.9	3.4	-8.2	8.0	-0.6	3.4
도	경기	78.3	68.4	77.6	82.1	81.9	2.2	-9.8	9.2	4.5	-0.3
	강원	65.7	63.6	69.7	70.3	72.6	-0.1	-2.1	6.0	0.7	2.2
	충북	69.0	61.6	69.5	73.1	72.0	-0.5	-7.3	7.9	3.6	-1.1
	충남	69.4	59.2	67.2	68.9	70.2	5.7	-10.2	8.0	1.7	1.3
	전북	68.3	62.8	69.8	70.8	69.8	2.8	-5.5	6.9	1.0	-0.9
	전남	60.9	58.1	66.5	67.6	67.3	-0.6	-2.7	8.3	1.1	-0.3
	경북	69.7	60.5	71.8	72.8	73.8	2.0	-9.3	11.4	0.9	1.1
	경남	72.0	64.8	72.7	75.3	74.9	1.7	-7.2	7.9	2.5	-0.3
	제주	72.1	66.9	72.7	73.3	74.8	3.7	-5.2	5.8	0.6	1.6

방과후학교 참여율 회복세 지속

□ 방과후학교 총액 및 참여율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에 크게 하락하였으나, 2023년 조사 결과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0년 9.5%에서 2021년 28.9%, 2022년 36.2%, 2023년 41.0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,

○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(53.3%)>광역시(42.7%)>서울(37.6%)>중소도시(36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전년 대비 증감(률)
방과후학교 총액 (천억 원)	9.3	0.3	4.4	6.9	**7.4**	7.6%
방과후학교 참여율(%)	48.4	9.5	28.9	36.2	**41.0**	4.8%p
대도시	48.9	6.0	27.9	35.5	**40.7**	5.2%p
서울	45.4	3.0	20.8	32.9	**37.6**	4.7%p
광역시	51.3	8.0	32.6	37.2	**42.7**	5.5%p
대도시 외	48.1	11.8	29.4	36.6	**41.2**	4.6%p
중소도시	43.4	8.7	22.5	31.8	**36.9**	5.1%p
읍면지역	61.5	20.1	48.1	49.9	**53.3**	3.5%p

※ 2020년 방과후학교는 연간화 미적용 (6개월 조사통계)

사교육 경감대책 지속 추진

□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'사교육 경감 대책(2023.6)'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□ 먼저,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, 체육·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사교육비 부담도 높다.

※ 2023년 초등 일반교과 및 예체능 모두 '보육' 목적의 사교육 전년 대비 증가 맞벌이 가구 비율(통계청) : ('20) 45.0% → ('21) 45.9% → ('22) 46.1%

○ 이에 대응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*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확대하여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추진한다.

* '누구나 이용' 대상 : (2024) 초1 → (2025) 초1~2 → (2026) 모든 초등학생

○ 올해 1학기부터 2,741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,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.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*하고,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체육, 문화예술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
*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: (2024) 초1 → (2025) 초1~2

□ 중·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사교육 증가에 대응하여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
○ 2023년 7월 EBS 중학 프리미엄(연간 약 71만 원)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여 약 31만 명(전체 중학생 4명 중 1명)이 혜택을 받았고, 2023년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감소(-0.8%p)하였다.

※ EBS 중학 프리미엄 이용자 : (2023.6) 1.4만 명 → (2024.2) 31만 명

○ 2024년에는 양질의 EBS 학습강좌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, 인공지능(AI) 기반 문제은행·학습관리 시스템*(EBS 단계별 추천 시스템)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,

* 학생의 수준별 문제풀이, 해설강의 시청,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관리 등 제공

○ 아울러, 학생들이 혼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원 및 대학생을 활용한 소규모 화상 튜터링도 함께 지원한다.

□ 교과목 중 상대적으로 높은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인 국어에 대해서는 공교육 내에서의 교육*을 강화하고,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,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**으로 지정하여 문해력·수리력 등에 대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.

* 초 1~2학년 국어시간 34시간 확대('24), 학교도서관 활용(협력) 수업 활성화 등

** 학력 진단 강화, 방과후 교과보충,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

○ 또한,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도 인문소양, 문해력, 사고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수능과 관련된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수능을 출제한다는 '공정수능' 원칙을 확립하고,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11월 수능 출제에서 킬러문항을 완전히 배제하였다.

○ 고교 내신과 관련해서도 2028 대입제도 개편(2023.12 확정안 발표)을 통해 기존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선하여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.

□ 2024년에도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사교육을 반드시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시도교육청 평가 등과 연계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디지털교육기획관 교육데이터담당관	책임자	과 장 권삼수 (044-203-6615)
		담당자	사무관 이일경 (044-203-6632)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	책임자	과 장 안주란 (044-203-7172)
		담당자	서기관 신민영 (044-203-7173)

붙임 **사교육 경감대책('23.6) 주요과제**

주요 추진과제	담당부서
1 공정한 수능평가 실현	
■ 공교육 내 출제 원칙 - 공교육 내에서의 출제 원칙 적용(킬러문항 핀셋 제거)	인재선발제도과 기초학력진로교육과
■ 수능 출제 관리체계 강화 - 수능 출제진 선정 및 관리 강화 등	인재선발제도과
2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	
■ 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국민 신고 접수	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
■ 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범정부 엄정 대응 - 범정부 대응 협의회 구성 및 사안별 관계기관 협조	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
3 공정한 입시체제 구현	
■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 - 대학별 고사, 내신, 고입 등의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준수	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
■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 강화 - 공공컨설팅 확대, 대입정보 공개 확대, N수생 사교육 조사 추진	인재선발제도과 교육데이터담당관
4 중·고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	
■ EBS를 활용한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- EBS 단추 개선,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제공, EBS 학습강좌 확충	학교교수학습혁신과
■ 학습 등 지원 강화 - 정규수업·방과후 교과 보충지도, 책임학년(초3, 중1) 지원, 대학생 멘토링 등	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방과후돌봄정책과 청년장학지원과
5 초등 돌봄 및 체육·예술 등 수요 흡수	
■ 늘봄학교 중심 돌봄 사교육 경감 - 늘봄학교 확대 추진, 돌봄 대기 해소, 방과후과정 재정지원 확대 등	방과후돌봄정책과
■ 체육·예술 사교육 흡수 등 - 수영장 등 학교 내 체육·예술 시설 확충, 예체능 방과후 확대, 1인 1특기 계발 , 디지털새싹캠프 운영, 방과후 지원 대상자 확대 등	인성체육예술교육과 교육시설과 방과후돌봄정책과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
6 유아 사교육 대응	
■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유보통합과 연계 - 이음학기 운영, 맞춤형 방과후과정 지원 확대, 유보통합 모델 제시 등	유아교육정책과 유보통합추진단
■ 유아 사교육 체계적 대응 추진 - 유아 사교육비 조사 추진,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 방지, 유아 사교육 관련 연구 추진	유아교육정책과 평생학습지원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